

▪ 교회소식 ▪

- 동호회 :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 교육부 회의 :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2: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 총회 : 다음 주일은 선교회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연간사업을 보고하고 신입원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보고 : 각 부서와 기관들은 사업보고서를 11월 27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부와 환경부는 내년 세미나 일정도 알려주세요)
- 남선교회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오늘 4시 예수마을교회에서 있습니다.
- 김장 : 이번 주 목요일 교회 김장을 담급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합니다.
- 판매 : 삼례은혜교회 교인들이 만든 딸기잼과 생강청을 판매합니다. 딸기잼은 한 병에 10,000원 생강청은 한 병에 12,000원입니다.
- 교적정리 : 교회 교적을 새롭게 정리합니다. 교적부를 작성하여 1층 로비에 있는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앙실천 : 이 나라를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눅 17:20-25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이형숙 권사	김정주 집사

11월	1부 영접위원	최재욱 이수정
	1부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김인걸 권혁순 박상규 허신열 이은주 유경순 박경원
	2부 헌금위원	박홍재 김경혜

오늘 식당 봉사 :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현주 김문주 조우석 이민범 한성건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순정 오복순 박안수 이은미 이부용 김광일 이윤석 신정훈  
 오늘설거지봉사 : 청파7속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3여선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묘  
상  
의  
소  
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창조절 제11주】

인도 1부 : 신진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4. 주 우리 하나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정의와 진리의 수호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의와 진리의 승리를 믿으며 불을 밝혀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든 작은 불빛들이 모여 이 땅 위에 드리워진 짙은 어둠을 말끔히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나라 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지구적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 이때, 힘 있는 나라들이 다시 장벽을 높이며 자국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갈 곳을 잃고 국가 간의 긴장은 높아만 갑니다. 주님, 각 나라들이 독자생존의 길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길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3,14a ..... 인도자

▲ 교 독 문 ..... 2. 시편 2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목회기도 ..... 임주빈 권사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84.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 다 함께

▲ 성경봉독 ..... 삼하 12:1-6 ..... I. 인도자

II. 유상진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2부찬양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찬양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곽정자	국지연	김광일	이부용	김대영	이효심	김명희	김성순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김종철	고영애	김지호	전혜리	남명진	김애정
남선옥	민지희	박규석	박경선	박기영	박다니엘	박범희	박미영	박상욱	박숙미
박영희	박예림	박인혁	방민	백묘현	서원금	안종일	정현주	안현숙	이광석
이경희	이국노	김민화	이미휘	이순용	김신실	이완구	이용현	최연실	이우상
이계월	이응석	이은경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임서영	임형욱	장동훈	정은선
정연경	정진호	양순임	정민경	조지연	주은경	최옥자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한선희	한인철	조윤숙	허신열	현진					

### 감사헌금

김인숙 김재흥 최희영 나오미1선교회 박명제 시므온선교회 이수자 이은혜  
이현규 이현순 조병무 송양진 무명6

### 녹색꿈헌금

김해선 김향자 이범석 류정욱 무명3

### 생일감사헌금

김진혁 설규범 이범석 류정욱 오복순

##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동 호 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주차 안내

## 선린 인터넛고 (서른 대 지정주차)

- \* 2부 예배 참석자 중 30대를 선정했습니다. (교회봉사자 등)
- \* 선정자는 주차증을 사무실에서 받아주세요.
- \* 주차는 오전 10:30부터 가능합니다.
- \* 선린학교 정문통과시 주차증을 운전석 위에 놓아주세요.
- \* 주차 시 구획선 안에 주차합니다.  
(장애자용 주차공간, 계단 앞, 화단 옆, 차량통로 등에 절대 주차금지)
- \* 주차공간이 없을 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합니다.

## 청파공영주차장

- \* 1부 예배 참석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합니다.
- \* 2부 예배 시 '30대 지정주차' 이외의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합니다.
- \* 교회발행 주차권을 예배 출석 시 영접위원회에서 받아갑니다.
- \* 입출고 시간제한은 없으나 최장 2시간에 주차권 1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교회 오실 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	다윗과 나단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541. 꽃이 피는 봄날에만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질책과 꾸지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한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아프지만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 부서진 마음

존 울만(1720-1772)은 식민지 시기 뉴저지에서 살았던 퀘이커교도였다. 그는 함께 어울렸던 상인과 농부들로 구성된 프렌드 교파 Society of Friends의 회원이었는데, 거기에서는 노예를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좌우되었다. 물론 그 노예들은 그 회원과 마찬가지로 이름, 가족, 역사,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노예를 두지 않았던 재단사 울만은 인간의 평등함에 대한 퀘이커교도적 신념과 많은 퀘이커교도 상류층이 노예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 사이의 커다란 모순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울만은 그러한 모순을 무시하거나 기술적인 속임수를 쓰거나 그 갈등을 폭력으로 분출하는 것으로써 긴장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에 자신의 공동체가 그 긴장을 정직하게 끌어안고 성심(誠心)으로 노예를 해방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

퀘이커교도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다수결 대신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울만의 지역 회합에서는 그의 제안에 관한 의견을 통일시킬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만이 그 문제에 성심으로 임하는 모습에 설득당한 이들은 그를 지지하기로 동의했다. 그 뒤로 20년 동안 울만은 동부 연안을 따라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프렌드 교파 회원들을 집과 상점과 농장 그리고 모임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퀘이커교도 동료들에게 신앙과 행동 사이에 생기는 가슴 아픈 모순을 이야기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믿음에 진실했다. 그는 염색하지 않은 흰옷만 입고 다녔는데, 염료가 노예 노동의 산물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노예가 마련한 식사를 하는 대신 금식을 택했다. 그리고 무심코 노예가 수고해준 혜택을 입으면 교환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려 했다.

울만과 그의 가족은 비통함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그는 긴장을 마다하지 않고 무려 20년 동안 끌어안았다. 결국 퀘이커교

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노예를 해방시킨 종교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는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80여 년 전의 일이다.

... 이러한 역사적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단지 울만뿐만 아니라 퀘이커교 공동체 전체가 어떤 빛이 보일 때까지 내적인 모순을 양심적이고 꾸준하게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울만과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도 그 문제를 대충 또는 어수룩하게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퀘이커교도들은 바로 투표에 부쳐 노예를 소유한 다수가 뜻을 관철하도록 하지 않았고, 성가신 울만을 추방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긴장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리라 믿으면서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신념을 시험했고 통일된 의견에 도달하기까지 애를 써서 결국 역사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 우리는 존 울만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부서지는 두 가지 방식을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마음이 수천 개의 사금파리로 깨어지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부서진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자신과 타인을 계속 괴롭힌다. 마음이 부서지고 흐트러질 때, 그것은 폭력의 씨앗을 뿌리고 타인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울만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다른 식으로 마음이 부서질 수도 있다. 부드러움을 간직한 채 깨져 열리는 마음은 우리 자신과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아 보다 많은 자비심으로 자신을 열어갈 때 부서진 마음은 치유의 근원이 되고 고통받는 타자와의 공감을 심화하고 그들에게 이르는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긴장을 끌어안음으로써 정의와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울만의 경우가 그것을 보여주었다.